

“종교계도 납세의무 지켜야”

종교법인법 제정추진시민연대 발족 “투명운영 위해 필요”...종교계 반발

임대업이나 식품가공업 등을 하는 사람, 매월 역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교회 등은 언제까지나 '세금치의 법권 지역' 일 수 있을까?
 종교 법인에도 납세의 의무를 부과 시키기 위한 '종교법인법' 제정운동이 막을 올렸다.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고은광순 흥명환의원 원장, 박광서 서경대 교수 등 시민사회 단체 인사 30여명은 4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종교법인법 제정 추진 시민연대'(이하 중추련)를 발대식을 가졌다. 종교법인법 제정을 통해 종교계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겠다는 의도다.
 중추련은 이날 발대식에서 "법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종교법인이 존재하면 그 법인에 대한 관련법이 있어야 한다"며 종교법인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어 중추련은 "우리 사회에는 소득이 많은데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수한 계급이 있다. 연 소득 10억 원이 넘고 대형차를 타며 사치스런 생활을 즐기고 있음에도 헌법 조항을 무시하며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특별한 계층이 있다는 뜻"이라며 "이런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냐"고 강한 어조로 반문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의료기관,

양로원, 고아원, 복지관, 사립학교 등 비영리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정해 민법이나 세법상 혜택을 주어 육성하고 보호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법을 통해 이에 따르는 의무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만 유독 종교법인에 대해서만 관련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국 종교계는 적어도 네 가지 이상의 헌법 조문과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중추련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11조 1항)',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으며(11조 2항)',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고 명시한 헌법 조문을 언급하며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 종교계를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 비영리 종교법인은 2006년 8월 기준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수만 재단법인 2백68개, 사단법인 2백61개 등 총 5백29개에 달한다. 이들 비영리 종교법인은 재산 압류금지, 법인세 감면, 종합토지세 비과세 등 총 19가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다시말해 종교단체들은 재민 소유자가 유고했을 때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부담해야 하지만, 비영리법인이 되면 재산의 소유권이 법인 소유가 되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교법인 관련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중추련은 "전 세계 1백 27개국에서 대부분의 종교단체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고 사실이지만 이에 따르는 권리와 함께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종교법인법이나 종교법인법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법인에 대한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

제로 전체 인구 가운데 74.7%가 기독교인인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조안을 별도로 마련해 정부가 종교를 후원하거나 뒷받침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1993년에는 '종교의 자유회복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정부가 종교적 수행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종교적 수행은 정부의 이익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결립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놓았다. 이는 그토록 중시하는 종교의 자유도 국익의 범위 안에서 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불교환경연대와 조계사가 4월 25일 공동으로 실시한 '제1기 불교환경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에서 50여 참가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빙그릇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그릇 비면 세상도 깨끗
 불교환경연대와 조계사가 4월 25일 공동으로 실시한 '제1기 불교환경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에서 50여 참가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빙그릇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대장경의 가르침 배우세요”

해인사 팔만대장경 강설대법회 시작...본지 중계

팔만대장경에 담겨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 안목과 생활불교적인 이해로 해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인사주지 현승은 4월 28일부터 '팔만대장경강설대법회'를 시작한다.
 팔만대장경 강설대법회는 총 1514종의 방대한 경전으로 이뤄져 있는 팔만대장경을 총 36회의 강의로써 팔만대장경의 대표적 경전 36권을 해석하는 것.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이 '숫타니파타(5월 26일)', '백유경(6월 23일)', '아함경(7월 28일)' 등 경전을 선정해 매일 1회의 강의로써 그 경전의 기본 사상을 설명한다.
 강의는 매일 넷째주 토요일 오후 2시 해인사 보경전에서 열리며, 3년간 36회 진행된다. 매회마다 본지가 강연내용을 요약 중계한다. 남동우 기자

개성 영통사에서 의천 스님 다례 '합의'

올해 대각국사 의천 스님 열반 906주기 다례제가 11월 14일 개성 영통사에서 열릴 전망이다.
 천태종 사부회장 무원 스님은 "4월 22-23일 금강산에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유영선) 정서정 서기장 등을 만나 이같이 잠정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4월 1일부터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단체의 행사 개별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기록용 및 소장용, 개인 다큐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 영상 등.
단장 겸 감독: 김봉환 (前 KBS/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02-2004-8279

I Love Buddha /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기

용정운(www.zentoon.com)

부처님 마음 닮고자 정진하는 우리들... 수행자입니다.
 꽃이 피었다... 지기를 반복하며 새롭게 피어나듯이
 수행자의 오늘을 어찌와는 다른 오늘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수행자이여서는 꽃기가 납니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영진 스님
 '참된 불법은 깨달음에 있다'
 5월 9일 오후 7시 광주 KT센터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인물經 世象 鏡

봄바람이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김규진(48)씨의 방. 만삭의 산모처럼 복수가 차 오를 배를 가누기 힘들어하며 거의 방에서만 생활하는 그가 봄 같은 선물을 받았다. 부산 스님(중앙승가대 대학원)이 명상 음악 CD를 가지고 온 것이다. 좋은 음악들을 골라서 스님이 직접 만든 CD를 받은 김규진씨는 "이제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며 "짧은 말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김규진씨는 독일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며 유학을 했다. 힘든 유학 생활 속에서도 늘 건강하고 밝았는데 공부와 마치고 귀국해서 병마를 만났다. 종합병원에서 건강화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짧으면 3개월 길어야 6개월 밖에 살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도 받았다. 그 순간 그에게는 오기 같은 것이 생겼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과 동시에 퇴원을 했다. 그리고 절과 산을 다니며 기도하고 자연식으로 식습관을 철저하게 바꿨다.
 병원에서 선고 받은 '길어야 6개월'이 네 번 지나갔다. 그의 투병생활은 불교와 자연에 '귀의'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귀의하되 철저히 귀의하는 것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올 봄은 힘에 부친다. 복수가 차오르고 고동이 심해지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다. 자연치과 요양치료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만만치 않다. 유일한 생계였던 과의 지도를 그만 두고, 그간 빛도 적지 않을 텐데 밝은 얼굴 잃지 않으려 애쓰는 아내를 바라보는 것도 힘겹기만 하다.
 가정의 달, 병마로 인해 무너지는 가정이 없기를 기원하는 것도 불자의 몫이 아닐까? (김규진 010-8953-1479)
 임연태 기자

김규진씨, 서글픈 '가정의 달'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등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 단 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경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